

구약논찬

제14권 4호(통권 30집) 2008년 12월 31일

장 석정(관동대) 포로사건 경고와 땅의 개념

이스라엘에 대한 포로사건 경고가 담겨있는 본문들을 분석하여, 거기에 나타난 땅의 개념을 밝히려는 연구이다. 출애굽 사건과 가장 근접한 시점을 본문 상에서 반영하고 있는 레위기와 신명기 본문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낼 것이라는 개념(레 18)과 땅의 안식 개념(레 26)을 분석했다. 애굽으로 가는 포로사건 경고(신 28)는 출애굽 사건과 땅의 약속을 무효화시킨다.

Chang, Sok-Chung

Exile-Warnings and Concept of the Land

포로 사건 경고와 땅의 개념

장 석정 | 관동대

1. 서론

포로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 가운데 하나이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내린 극단적인 징벌이라고 할 수 있다.¹⁾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멸절되거나, 쫓겨 간 이방 나라에서 멸절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현실로 성취되지 못했다. 하지만 가나안 거민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과 이방 나라들로 흩어지는 포로 사건에 대한 경고는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가운데,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받게 될 최악의 형벌은 포로 사건이 된다.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되는 사건인 포로 사건은 여호와만을 섬겨야 했던 제한된 공간으로부터의 추방이라고 하겠다.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1) 본 논문에서는 '포로 사건'이라는 용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에 의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사건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이방 땅에서 살게 되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들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포로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없었다는 사실도 '포로 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땅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언약'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동시에 여호와도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언약의 또 다른 측면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약속의 땅을 떠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무효가 된 것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포로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렇게 큰 사건인 포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기록된 성서 본문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포로 사건이 역사적 사실로 일어난 이후의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과 역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²⁾ 있었지만, 정작 포로 사건을 미리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석과 검토 작업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포로 사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방인들의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이 포로 사건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초점은 거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었다. 그들의 절망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혹독하게 벌하신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새로운 신학적 이해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포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이를 경고하고 있는 본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포로 사건의 경고 말씀들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문 연구: 포로 사건 경고와 땅의 개념

포로 사건이 구체화 된 것은 북 왕국이 멸망했을 때(722 BCE)와 남 왕

2) R. Albertz/B. Becking(ed.), *Yahwism after the Exile: Perspective on Israelite Religion in the Persian Era*, (Studies in Theology and Religion 5), (Assen: Royal van Gorcum, 2003); R. Albertz, *Israel in Exile: The History and Literature of the Sixth Century B.C.E.*(Studies in Biblical Literature),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3); Daniel Smith-Christopher, *A Biblical Theology of Exile*(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Lester Grabbe(ed.), *Leading Captivity Captive: 'The Exile' as History and Ideology* (JOSTSup 27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국이 멸망했을 때(587 BCE)이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사건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되었다. 많은 본문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본문에 나타난 시점 상으로 출애굽 사건의 시점과 가장 가까우면서, 아직 약속의 땅 정복 전의 상황을 기록한 레위기와 신명기 중에서 포로 사건을 경고하는 본문들을 분석했다.³⁾

1) 레 18장 24-30절

(24)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27)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28)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포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29) 아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30) 타르그르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좃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구절은 그릇된 성 관계를 금하는 율례(레 18: 6-23) 다음에 나온다. 이러한 일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가나안 거민들도 이런 일들을 자행함으로써 더럽게 되었으며,⁴⁾ 또한 이로 인해 땅도 더럽혀졌고, 그 결과 땅이 거민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지만, 그들이 범한 가증한 죄들로 인해 스스로 더러워져서 땅이 그들을 쫓아낸 것이라는 말씀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도 더러워지고 가나안 거민들처럼 땅이 이스라엘도 토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땅에서 토해내진 이스라엘은 결국 레 18장 29절의 내용처럼

3) 각 본문들이 포로기 이전 문서인지 혹은 이후의 문서인지에 관한 논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고, 이 논문이 지향하는 개념적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4) 게르스텐베르거에 따르면, 애굽과 가나안 풍습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과 그 땅의 거민들에 대한 축출은 분명히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인들의 이상적인 관념에 기초한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 선택한 성스러운 땅은 이방인들이 전혀 없는 순결한 장소여야 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만이 거기에서 유효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화적 상징 언어로 된 25-28절에서, 땅은 '이방인들'로 인해서 오염되었다. 예를 들어, 수 1 - 12장은 여호와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팔레스타인에서 모든 다른 족속들을 정화시키게 하셔서, 어떤 이방인들도 거기에 남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Erhard S. Gerstenberger, *Leviticus: A Commentary*(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256쪽.

럼 백성 중에서 끊어진 신세가 된다고 기록한다. 땅에서 토해진 상태는 더 이상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되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서 족장들에게 주기로 하시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진멸의 명령이 현실적으로 행해지지 않았기에, 가나안 거민들의 이방 신 섬기기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땅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땅의 정결함과 더러움은 오직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레 18장의 처음인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고 여호와가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또한 여호와의 법도를 좇고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은 살게 된다고 말씀한다. 과거의 땅인 애굽 땅과 미래의 땅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의 신들을 이스라엘이 섬기는 것이 여호와가 가장 진노하시는 일이다. 따라서 가증스러운 풍속인 가나안 거민들의 그릇된 성 관계를 금지하는 명령도 이러한 대 명제에 속하는 세부 금지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땅에서 쫓겨나는 징벌을 내리신다는 경고의 말씀은 결국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이스라엘이 어겼을 때 이런 징벌이 내린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증스런 죄가 이스라엘과 땅을 더럽게 하여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냄으로 땅은 정결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⁵⁾ 여기에 나타난 땅의 개념은 정결함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역시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키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 땅이 더러움을 참지 못하고 토해내는 상태가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최악의 상태인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벌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⁶⁾ 물론 이것은 포로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땅의 개념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⁷⁾ 전체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라기

5) 땅을 의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 4:11에서 땅이 그 입을 벌려 아벨의 피를 받았다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6) 땅이 사람을 토해내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예는 레 20장에 나타난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레 20:22).

7) 게르스텐베르거는 포로 사건을 통해서 이 경고의 말씀은 실현되었다고 본다. Gerstenberger,

보다는 이스라엘의 각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사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땅에서 그 죄를 범한 구성원들이 쫓겨나게 되는 심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낸다는 것이 반드시 '포로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는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광의(廣義)의 '포로 사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2) 레 26장

레 26장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거듭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은 열국으로 흩어지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⁸⁾ 본문의 내용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기로 하자.

(1)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첫 번째 구절의 내용이 우상을 만들거나 경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중요성을 가진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기록될 때는 우상 금지에 관한 내용이 전제로 나오기 때문이다(출 20: 4-5; 신 4: 15-23, 25). 여기에서도 이렇게 우상 제작과 경배 금지에 대한 명령이 선행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향치 아니하³²⁾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³³⁾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흠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⁴⁰⁾ 너희

Leviticus, 256쪽.

8) 이 형식을 예언자적 선포(prophetic announcement)라고 한다. 또한 고대 근동 조약들의 장르와 관련성이 있다. Ch. Nihan, *From Priestly Torah to Pentateuch: A Study in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Leviticus*(Forschung zum Alten Testament 2. Reihe 25), (Tübingen: Mohr Siebeck, 2007), 536쪽.

9) 열방 중에 흠을 것이라는 표현은 에스겔이 가장 선호한다(겔 5: 2, 10, 12: 6 & 12: 14-15; 20: 23, 22: 15; 29: 12; 30: 23, 26). J. Milgrom, *Leviticus 23-26*(AB), (New York: Doubleday, 2001),

여기에서는 포로 사건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떠나고 난 땅의 상황과 그 땅을 떠난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지만, 초점은 약속의 땅과 열방의 땅에 맞춰지고 있다.¹¹⁾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포로 사건을 통한 심판을 내리신다고 되어 있으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결국 그 이방인들의 땅에서 멸망할 것으로 되어 있다(레 26: 38-39).

레 26장 14절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몇 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 칠 배나 강한 재앙을 내리시고, 이러한 과정이 네 번 거듭된다고 나온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면서 마지막 재앙으로서 포로 사건을 내리신다는 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처음 선포된 재앙의 내용보다 무려 7의 네 배 제공만큼 심한 재앙의 목록 속에 포로 사건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재앙들의 내용 가운데도 잔혹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보다 더욱 심한 재앙이 포로로 잡혀가는 재앙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포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효가 되며, 따라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가 된다는 면에서 최악의 형벌이 된다.

(40)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¹¹⁾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최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¹²⁾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232쪽.

10) 이 표현은 여호와의 심판 선언에 자주 사용된다(겔 5: 2, 12: 12-14). Gerstenberger, *Leviticus*, 423쪽.

11) 게르스텐베르거는 특별히 32절 이하에서 땅의 운명과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본다. Gerstenberger, *Leviticus*, 423쪽.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중에 더 우선적인 개념을 분별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 구절의 중심적인 개념은 땅인데, 그것이 약속의 땅이나 아니면 이방 족속의 땅이나가 달라질 뿐이다.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⁴³⁾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
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레 26장 41절의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스라
엘의 포로 사건에 대한 암시를 발견하게 된다. 레 26장 42절 후반부의
“그 땅을 권고하리라”는 표현은 여호와가 그 땅을 기억할 것이라는 뜻이
다. 언약과 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레 26장 43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 형벌을 받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 사건을 당하는 것은 단순
히 형벌일 뿐이며, 이스라엘이 진멸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44)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
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45)과 내가 그들
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46)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
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니한(Ch. Nihan)에 따르면, 레 26장 39-45절은 신 28장에는 없는 내
용인데, 이것이 바로 레 26장이 신 28장보다 개혁적인 기록임을 보여주
는 증거라고 주장한다.¹²⁾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
하지 않으실 것임을 알 수 있다. 포로 사건이 이스라엘이 멸절되는 징벌
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
을 심판하시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형벌을 당하게
하시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레 26: 45)을 기억하시
고,¹³⁾ 이스라엘을 위하여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하지는 않으실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는 말이다.

12) Nihan, *From Priestly*, 537쪽.

13)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티브는 P 자료에 특징적이다(창 9: 15, 16). Nihan, *From Priestly*, 541쪽.

여기에서 언약은 족장들과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레 26: 46)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열조”를 언급한 것은 역설적(ironic)이라고 하겠다.¹⁴⁾ 게르스텐베르거는 언약 갱신이라는 개념 밑에 깔린 전제는 오랜 동안의 포로 생활이라고 말하면서, 고통의 포로 생활이 레 26장 34절 이하의 땅의 안식 개념으로 묘사되었다고 본다.¹⁵⁾

이제 땅의 개념과 안식의 모티브가 연관되는 구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레 26장 34-39절의 본문은 땅이 안식하는 것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34)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 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려라(35)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쉬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36)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37)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38)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39)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이 레 26장의 본문에는 약속의 땅의 개념 가운데 매우 독특한 개념이 소개되고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황무하게 된 땅이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하여 사는 동안에는 그 땅이 안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땅에서 떠나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이다.¹⁶⁾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약속의 땅이 더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14) N. Kiuchi, *Leviticus*(AOTC 3),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7), 486쪽.

15) Gerstenberger, *Leviticus*, 432쪽.

16) 키우치는 이 구절들이 레 25장에 나오는 안식년에 관한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Kiuchi, *Leviticus*, 483쪽. 그러나 이는 땅의 개념성을 놓친 결과이다. 25장에 언급된 안식년에 대한 내용은 물론 연관성이 있겠지만, 여기서 안식은 2절의 안식일 엄수에 대한 언급이며, 땅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가나안 사람들은 아직도 그 땅에 살고 있는데, 땅이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만 없다면, 그 땅은 황무한 것으로 묘사될 수 있으며, 그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이 있어도 땅이 안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레 26장 33절 전반부에 포로 사건을 언급하고 나서, 33절 후반부에 이스라엘이 살던 땅이 황무하고 성읍이 황폐하게 된다는 말이 나온다. 밀그롬은 이 후반부 내용이 반복적이고(레 26: 31a, 32a), 잘못된 위치에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곳이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스라엘의 땅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¹⁷⁾ 그러나 이는 이 본문의 개념이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땅에 있다는 것을 간과한 해석이다. 초점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던 땅에 맞춰져 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주인공은 이 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

레 26장 3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열방 중에서 망할 것이라 한다. 이는 LXX, NJPS, NEB, NRSV 등의 번역에서도 **אבד**(아바드)를 “perish”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라시(Rashi)는 이를 “lost, strayed, diepersed”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다. 밀그롬은 ‘멸망한다’는 의미로 번역하면, 그 다음 절인 레 26장 39절의 남은 자들과 상충된다고 본다.¹⁸⁾ 그러나 ‘멸망한다’는 의미로 번역한다고 해도, 레 26장 38절까지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 언급한 것이지, 각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¹⁹⁾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 멸망했다는 말이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원 멸망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남은 자에 대한 레 26장 39절의 내용과는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אבד**에 대한 번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한다’고 했을 때, 전원이 다 죽음을 당한다는 비현실적인 의미만을 제외하고 해석한다면 큰 무리가 없는 구절이라고 하겠다.²⁰⁾

17) Milgrom, *Leviticus 23-27*, 232쪽.

18) Milgrom, *윗글*, 2326쪽.

19) Kiuchi, *Leviticus*, 484쪽.

20) 여기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은 약속의 땅에 남은 자들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게르스텐베르거는 레 26장 34-45절의 본문은 포로기 때를 다루고 있는데, 이미 포로 사건에 대해 반추해 보았고, 이 최악의 사건을 해석했던 사람들의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고 본다. 즉 이 본문은 현재의 포로 사건에 대한 회상적인 설교인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땅을 어떻게 유린했는가 하는 점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놀랍다는 것이다.²¹⁾ 이것은 이 본문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개념이 유다의 멸망 사건이 아니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속의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는 두 번째 관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땅에서 떠남으로써 그 약속의 땅이 안식하게 되는 것에 첫 번째 관심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대적의 땅”도 레 26장 38-39절에서 언급함으로써, 땅의 개념에 초점이 맞춰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약속의 땅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지만, 대적의 땅도 이스라엘이 그곳에 끌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²⁾

따라서 특정한 약속의 땅도 중요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가 있게 되자, 이스라엘이 거주하게 될 그 이방인들의 땅이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반드시 약속의 땅이 아니라도, 대적들의 땅도 이스라엘이 거주하기에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하여 이제 대적의 땅에서도 멸망을 체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본문은 새롭게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준다.

3) 신 4장

(25)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

남은 자들을 의미하며, 이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추적하여 벌하시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놀랍다고 게르스텐베르거는 주장한다. Gerstenberger, *Leviticus*, 427-28쪽.

- 21) Gerstenberger, *Leviticus*, 426-27쪽. 게르스텐베르거는 이스라엘이 부족 국가 시대나 왕정 시대에 무시했던 안식년 법을 여호와가 다시금 소급하여(reactively) 땅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인가를 묻고 있다. 성서 기자가 레 25장 1-4절에 나오는 안식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도 묻고 있다. 여호와와 신성한 땅은 너무 오랫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이제 여호와는 그 땅에서 모든 인간들을 임시적으로 쓸어버리시고, 그 땅을 황무한 채로 놔두기를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 22) 밀그롬에 따르면, 고대근동의 저주문구에서는 심판을 내리는 신은 그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장소까지 쫓아가지는 않는다. 그럴 수 없는 것이 다른 이방족속의 땅은 또 다른 신이 관장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Milgrom, *Leviticus* 23-27, 2322쪽.

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26)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27)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흠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28)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신 4장 23절과 마찬가지로 25절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손자까지 낳고 살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역시 그 땅에 들어가서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있을 수 있는 일을 말한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우상의 형상을 조각하는 악을 행하게 될 가능성을 가리킨다.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죄악이 우상을 만드는 죄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고려할 점이다. 물론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그런 형상만을 만든다는 의미보다는 그 우상이 상징하고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언약을 어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패역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월이 지났을 때 저지르게 되는 죄악이 강조되고 있다. 벨슨에 따르면, 신 4장 25-28절은 포로(exile)와 회복(restoration)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면서, 포로 사건의 날짜를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일반적인 이주 정책(deportation)을 앗시리아 제국 정책의 한 특징으로 익숙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본다.²³⁾

이 구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살 때,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속히 망하고 전멸”(신 4: 26)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모두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²⁴⁾ 그러나 그 다음 절(신 4: 27-28)을 보

23) R. Nelson, *Deuteronomy(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68쪽. 또한 벨슨은 모세가 여기에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예견하고 있는 것은 신명기의 가장 초창기 독자들에게도 북 왕국의 멸망이라는 모습으로 이미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4) 미첼은 신명기가 멸절(꺆꺆)을 땅의 거민들의 위험한 종교적 활동 수단들을 파괴하는 도구로써 간주한다. 나머지 신명기역사에 있어서 꺆꺆은 종교적 순수성을 보호하는 수단이었다고 기록하

면, 상황이 다르게 나타난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흠으실²⁵⁾ 것이고, 그들은 열국으로 가서 목석의 신들을 섬길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포로 사건 자체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진다. 신 4장 26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우상들을 조각한 이유로 인해서 그 땅에서 전멸 당하게 된다는 것이므로, 포로 사건 자체와는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 4장 27-28절의 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신 4장 27절은 먼저 포로 사건의 징벌을 언급하는데, 포로 사건은 고대 근동의 조약들에서 흔히 나오는 일반적인 위협 내용이며, 강대국이 멀리 떨어진 속국들의 반란 음모를 사전에 잠재우는 도구로써 사용되었다. 이 포로 사건의 징벌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 받았던 땅과 자손의 번성이라는 두 가지 축복을 다 잃게 된 것이다.²⁶⁾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징벌이 내리는 이유가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이라고 신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다. 결국 포로 사건을 징벌로 내리는 이유는 우상을 조각했기 때문이다.²⁷⁾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우상 숭배를 행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포로 사건에 대한 이유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행위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우상들을 이스라엘이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이며,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멸절 명령을 실행하지 못했고, 더욱이 남아 있던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포로 사건이

는 본문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G. Mitchell, *Together in the Land: A Reading of the Book of Joshua*(JSOTSup 134), (Sheffield: JSOT Press, 1993), 57쪽.

25) 신명기는 열왕기와 예레미야와는 달리 **גלות**(exi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לָקַח**(lead awa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J. McConville, *Deuteronomy*(AOTC),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2), 110쪽. 바인펠트에 따르면, **גלות**를 쓰지 않은 것은 앗시리아 제국의 포로사건을 체험하는 것이 734 BCE 이후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보며, 시대착오적인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세의 연설인 신명기 본문에서는 이 단어의 사용을 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M. Weinfeld, *Deuteronomy 1-11*(AB), (New York: Doubleday, 1991), 208-9쪽.

26) McConville, *Deuteronomy*, 110쪽.

27) 신 4: 23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다.

징벌로서 내려지는 이유는 결국 가나안 거민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의 제단과 우상의 형상들이 보존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우상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증스러운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²⁸⁾

4) 신 28장²⁹⁾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키면 받을 축복들(신 28: 1-14)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받게 될 저주들(신 28: 15-68)이 기록되어 있다.³⁰⁾ 이 논문의 주제가 포로 사건인 관계로 저주의 내용 가운데 이와 연관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자. 우선 각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포로 사건을 당한다는 경고들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25절 세계 만국 중에 흠을 당하고 []³¹⁾
- 36-37절 열조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심 [포로 사건 경고]
- 41절 자녀들이 포로가 됨 [포로 사건 경고]
- 63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포로 사건 경고]³²⁾
- 64절 만민 중에 흠으시리니 [포로 사건 경고]
- 68절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 [포로 사건 경고--애굽으로]

(25)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28) 바인펠트는 23-31절까지의 내용은 이 모세의 설교문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며, 그들은 포로사건이라는 하나님의 징벌을 경험했다고 주장한다. Weinfeld, *Deuteronomy 1-11*, 207쪽. 넬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사건에서의 귀환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암시되어 있다고 본다. 이는 28절과 29절에 나오는 거기서(□)라는 표현에서 암시되고 있으며, 포로사건의 회복을 나타내는 내용(30절)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본다. Nelson, *Deuteronomy*, 69쪽.

29) 28장 전체의 형성과정에 관해서는 넬슨의 책을 참고하라. Nelson, *Deuteronomy*, 328-9쪽.

30) 넬슨에 따르면, 이 본문은 철저하게 J자료(신 28: 9, 36, 60, 64, 68)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축복과 저주 자료들을 재 작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28장은 함무라비 법전이나 세피르(Sefire) 조약의 서문과 병행구를 가진다. Nelson, *Deuteronomy*, 327쪽.

31) 우리말 번역인 개역과 개역개정판 번역은 이 부분을 오해하게 만든다. 히브리어 본문을 번역하면, “너희는 땅 위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가 된다. 따라서 25절은 포로 사건의 경고라고 볼 수 없다.

32) 맥콘빌은 63절을 포로사건의 경고라고 분명히 언급하지 않는다. McConville, *Deuteronomy*, 408쪽. 그러나 ‘땅에서 뽑힌다’는 표현은 포로 사건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 만국 중에 흠음을 당하고 (36)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
 금을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도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
 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37)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
 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38)라
 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네게 있지 못할 것이며
 (63)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
 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
 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64)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흠으시리니 네가 그
 곳에서 너와 네 열조의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65)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네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
 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특별히 신 28장 68절은 이방 족속들의 땅 가운데, 애굽으로 포로로 끌
 어가실 것임을 말씀한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으로 시작된 약속의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성취가 다시 무효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³³⁾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원래 노비가 되었던 곳에서 다시 노비가 되려고 해도
 아무도 사주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내용은 특별히 땅의 개념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출애굽 사건을 통
 해서 역사 하신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버리시
 고 다시 애굽 땅으로 끌어가신다는 역설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³⁴⁾ 따
 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하
 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 살고 있던 가나
 안 거민들을 진멸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는 오직 이스라
 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 이스라엘은
 정작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거민들을 진멸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다. 이에 대한

33) Nihan, *From Priestly*, 540쪽.

34) 넬슨은 63b-68절을 국가적인 흠어짐(national dispersion)이라고 본다. Nelson, *Deuteronomy*,
 333쪽. 그러나 이 부분은 포로 사건의 경고에 해당한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쫓겨나게 된
 다는 경고다.

형벌로 이방 족속들에게 고통을 받는 세월을 보내게 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조각하면서 패역한 행위를 그치지 않았다.

결국 이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경고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 안에서 멸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의 본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땅의 안식을 위하여 실행되지 않았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둘째,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뽑혀져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남북 왕국의 멸망과 포로 사건을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68절의 본문은 그것에 한 차원 더 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출애굽 했던 애굽 땅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기록되었다.³⁵⁾

여기에 나타난 땅의 개념은 매우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서에 나타난 땅의 개념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약속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신 28장이 경고하는 애굽으로의 포로 사건은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땅의 약속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토대는 약속의 땅이며, 이 땅에서 쫓겨나는 포로 사건은 이 언약이 파기되는 최악의 사건인 것이다. 더 이상 땅의 약속이 전제되지 않는 땅의 개념이 바로 애굽으로의 포로 사건 경고 말씀 속에서 발견된다.

3. 결론

지금까지 포로 사건이라는 비극적 사건이 역사적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 본문들 속에 나타난 땅의 개념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시도해 보았다. 레 18장에는 가증스러운 죄를 범했을 경우,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낸다는 개념이 등장한다. 땅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땅에서 쫓아냄으로써 땅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땅의 성결(purity)이 이스라엘보다 우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낸다는 것이 반드시 포로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포로가

35)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은 예레미야의 경우를 보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다. 유다가 멸망당한 후 예레미야는 바룩 등과 함께 애굽 땅으로 피신하였다(렘 43: 6-7).

되어 끌려가지 않는다 해도,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된다는 징벌이므로, 구체적으로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되는 포로 사건의 원형에 속한다고 하겠다.

레 26장은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 흩어지게 되는 징벌을 경고한다. 더욱이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떠나 있는 동안에 그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땅의 개념이 포로 사건 경고의 말씀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개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포로로 잡혀간 대적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각각의 신들이 관장하고 있는 지역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 4장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조각하면 열국 중에 흩어진다고 경고한다. 결국 이방 신들을 섬기면 포로 사건이라는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본문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열국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길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이방 땅도 여호와께서 관장하시는 영역임을 거듭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신 28장은 포로 사건의 경고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되는 본문이다.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받게 될 축복들과 이 명령들을 어겼을 경우에 경험하게 될 징벌들이 포로 사건에 집중되어 표현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열방의 땅들로 흩어지게 되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 했던 그 애굽 땅으로도 포로가 되어 가게 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무효화하는 엄청난 징벌임에 틀림없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의 출애굽 사건이 무의미해졌다는 것은 약속의 땅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 최악의 심판이 포로 사건임을 확인시켜 준다.

본 논문은 레위기에서 땅의 성결함에 대한 강조가 포로 사건과 연관되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출애굽기에 나타난 땅의 황무함이라는 개념은 레위기에서 땅의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명기는 이방신들에 대한 숭배 금지 명령을 어기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인들의 땅으로 끌려가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며, 더욱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는 포로 사건을 경고함으로써,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효화하는 극단적인 땅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포로 사건의 경고가 담겨 있는 본문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땅의 개념들을 정리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포로 사건이라는 극단적인 징벌은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삼은 그 약속의 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사건임을 이 연구는 분명히 보여준다.

4. 참고문헌

- 강 성열, 「신명기」 방석중 교수 회갑기념. (감신대출판부, 2004).
- 왕 대일, “레위기의 구조, 레위기의 신학,” 「신학과 세계」 제 31호(1995), 7-36쪽.
- 장 석정, 「하나님의 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Albertz, R./B. Becking(eds.), *Yahwism after the Exile: Perspective on Israelite Religion in the Persian Era* (Studies in Theology and Religion 5), (Assen: Royal van Gorcum, 2003).
- Albertz, R., *Israel in Exile: The History and Literature of the Sixth Century B.C.E.* (Studies in Biblical Literature),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3).
- Brett, M. G.(ed.), *Ethnicity and the Bible*, (Boston: Brill Academic Publishers, 2002).
- Gafni, I. M. *Land, Center and Diaspora: Jewish Constructs in Late Antiquit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 Gerstenberger, E. S. *Leviticus: A Commentary(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 Grabbe, L.(ed.), *Leading Captivity Captive: 'The Exile' as History and Ideology* (JOSTSup 27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 Grosby, St., *Biblical Ideas of Nationality: Ancient and Modern*, (Winona Lake: Eisenbrauns, 2002).
- Kiuchi, N., *Leviticus*(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3), (Downers Grove: Inver Varsity Press, 2007).
- McConville, J. G. *Deuteronomy*(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2).
- McKenzie, St./M. P. Graham, *The History of Israel's Traditions: The Heritage of M. Noth*(JSOTSup 18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 Milgrom, J., *Leviticus 23-27(AB)*, (New York: Doubleday, 2001).
- Mitchell, G., *Together in the Land: A Reading of the Book of Joshua*(JSOTSup 134), (Sheffield: JSOT Press, 1993).
- Mullen, E. Th. Jr., *Ethnic Myths and Pentateuchal Foundations: A New Approach to the Formation of the Pentateuch*, (Atlanta: Scholars Press, 1997).
- Nelson, D. R., *Deuteronomy(OTL)*, (Westminster John Knox Press: Louisville, 2002).
- Nihan, Ch., *From Priestly Torah to Pentateuch: A Study in the Composition of the*

- Book of Leviticus*(Forschung zum Alten Testament 2. Reihe 25), (Tubingen: Mohr Siebeck, 2007).
- Smith-Christopher, D., *A Biblical Theology of Exile.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 Sparks, K. L., *Ethnicity and Identity in Ancient Israel*, (Winona Lake: Eisenbrauns, 1998).
- Weifeld, M., *Deuteronomy 1-11*(AB), (New York: Doubleday, 1991).
- Welch, A. C., *The Code of Deuteronomy*, (London: James Clark, 1924).

검색어

포로사건

레위기

신명기

땅

이스라엘

투고일: 2008년 10월 2일

심사일: 2008년 11월 7일

게재확정일: 2008년 12월 5일

Exile-Warnings and Concept of the Land

Sok-Chung Chang,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Kwandong University

This paper, the first of three consecutive papers, contains the effort to analyze the texts which include 'exile warnings' against Israel. The second paper would be the study on the texts depicting the exile events themselves. The third paper would concern the texts describing the post-exilic situations in relationship with the concept of the land. The texts have to be selective because there are so many kinds of texts saying that Israel would be in exile as her punishment. The study tries to identify the concept of the land in Leviticus 18: 26 and Deuteronomy 4: 28 and to compare one another in order to find any shift of emphasis in terms of the concept of the land.

Leviticus 18 introduces the concept that the land would vomit its inhabitants because they defiled themselves and the land by committing the sins of the prohibited sexual behaviors. The purity of the land is preferred to Israel in this concept of the land. In Leviticus 26, the purity of the land is associated with exile warnings and it extends to

the land of the foreigners where Israel would live. Also the sabbath of the land is focused in relationship with the exile event. While Israel was in exile, the land will enjoy its sabbatical rest. In Deuteronomy 4, making images would result in the exile punishment. Also the texts warn that Israel in the foreign land would not live long and serve foreign gods. Especially, Deuteronomy 28 contains the texts warning the exile event to other nations as well as to Egypt. The warning of exile to Egypt is crucial because it would nullify the exodus event and the promise of the land given to Abraham. Therefore, the concept of the land in exile warnings changes from a text to another in terms of its different emphasis on the land.

Keywords

Exile
Leviticus
Deuteronomy
Land
Israel